

이방인의 눈에 땀 옛날의 붓놀림

4 이미지를 빌려주는 귀한 책

정진국
미술평론가

아무튼 책읽기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들고다니기를 좋아한다. 서류가방이나 핸드백보다는 덜 무뚝뚝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친구를 기다려야 할 때나, 어차피 바람맛을 각오가 되어 있는 기다림 속에서도, 책은 수시로 말을 걸어오며 당신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속삭여 주기 때문이다. 커피나 담배는 우리의 입을 달래주지만, 책은 우리의 시선을 달래준다. 게다가 우리의 귀까지도.

취향을 돋우는 역할까지

일터와 자기집만을 오가는 생활이 아니라 외출, 만남과 약속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을 때, 책 또한 외출을 위한 변신에 나서지 않았던가? 2절판에서 4절판, 8절판, 16절판으로. 그리고 주머니 속에 달랑 뛰어드는 포켓판으로. 근엄한 철학서적도, 방대한 백과사전과 대화소설도 켜거루 새끼들처럼 깡충대며 그녀와 그의 허리춤을 파고 들게 되지 않았던가?

카세트 테이프를 끌라주고 운전석에 오르는 대신에, 혹은 워크맨을 머리에 쓰고 외출하는 대신에, 버스나 전철에서 읽을거리를 찾아두고 조금은 덜 허전한 기분으로 문을 나서던 날들이 바로 옛그제 아니었던가?

출퇴근길의 무거운 발걸음을 덜어주기도 하려는 듯이, 가벼운 읽을거리들이 속속 등장한 것도 그다지 오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외출에 졸졸 따라나서는 책이

어떤 점에서 책은

읽히기보다

분위기와 장식을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빌려주는 데에

시간을 보낸다.

맥주집에는 독일어 장서가,

그렇듯한 찻집에는

느닷없이 의학서적들이

취향을 돋운다.

수첩이나 분갑만큼이나 장식적이며 또 소중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다. 다방이나 술집에, 혹은 백화점 화장실이나 지하철에 두고 내린다고 해서 펄쩍 뛰며 다시 찾아나서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책은 우리의 허전한 손을 달래주는 것에 비한다면 값싸고, 번거롭고, 잊어버려도 그만인 그런 것이 되었다. 요즘의 책은 더 이상 금실(金絲)로 글을 새기고, 부채살처럼 펼쳐지며, 곱게 두드려 그 울룩불룩한 살결이 매만져지는 갑에 넣어 목에 걸고 다니던 순례의 동반자가 아니다.

어떤 점에서 책은, 귀한 책은 읽혀지는 것이기에 주목받기보다는 분위기와 장식을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빌려주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맥주집에는 독일어 장서

가, 양주집이나 그럴싸한 찻집에는 느닷없이 두꺼운 의학서적들이 원서(原書)의 품위를 뽐내면서 취향을 돋우려는 중이다. 이렇게 외국손님을 위해 한국적인 맛을 보여주고자 번역도 안된 우리의 고전들은 도배용지로 둔갑하기도 한다.

잇고 살 뻔한 페이지들

낮설고 이국적인 것일수록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하더라도, 또 그 이미지의 순수함은 건딜 수 없는 백치미로 물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맹목적인 주시는 때로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냈던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방인의 눈이 있었기에 우리의 눈에 띄는 것들, 그 뚜렷한 대비가 없었다면 어두운 계조 속에 묻혀버렸을 것들이다. 벽을 치장하려는 장식과 꾸밈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아예 씻은 듯이 잇고 살 뻔 했을지도 모를 페이지들이다.

한문을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목판의 행간은 수려하고, 세로쓰기의 문자들은 날날이 아리따운 무늬가 된다. 칼로 도려낸 필치들은 그 옛날의 붓놀림이 되며 위로 치솟고 아래로 미끄러진다. 뜻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면서 읽어내리는 환상적인 즐거움이다.

1888년에 출간된 샤를바라의 《여행기》나, 1901년에 출간된 조르주 뒤크독의 《가난하고 온화한 나라》를 손에 들고서 신사들의 어느 한식집을 찾은 이 프랑스 친구에게는 밥상머리에서도 한 눈 팔 시간이 없다.

한세기 전의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식탁에 넘치고, 우리의 입맛을 돋구어 준다.

63빌딩이나 이태원 상가를 안내하는 책자 대신에, 고리타분한 여행기를 들고 온 덕분에 바가지 요금이나 현란한 마천루들도 이 친구에게는 늘상 에피소드일 뿐이다.

삼청동과 가회동 골목에 들어서기만 해도 사대문 안의 서울은 백년전의 모습이 되고, 중부시장 골목에서는 마포와 제물포의 흥청대는 소리를 듣는다. 무교동 해장국집도 그에게는 고즈넉한 주막이다. 단지 유감이라면, 선비의 모습을 따라 침상에 누워 죽부인을 끼고 한 손으로 책장을 넘기지 못한다는 점일 것이다.

책 한권이 없는 불만

책읽는 사람만이 거슬러 오를 수 있는 역사기행이다. 손님이 주인에게 베풀 수 있는 비용이 들지 않는 답례이기도 하다. 강화도에서 책을 강탈해갔던 친구들이, 그 자손들이, 책을 돌려주는 대신에 표할 수 있는 사과의 또다른 방법이다.

책벌레처럼 늘 책과 붙어다니는 이 친구의 눈에, 한국의 학술원 책상 위에는 전화기와 재떨이만이 빛나는 것이 기이할 수밖에 없고, 압구정동이나 방배동 카페의 서가들이 피그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주의 고인쇄박물관에는 안내책자 하나 번듯한 것이 없고, 전주의 재래 종이공방에는 기념품 가게가 없는 것이 불만스러운 수밖에 없다. 찬란했던 활자와 인쇄문화를 이방인들에게

호클 전문출력센터

삼화전산

Tel:263-2651/3 Modem:277-8097/8 Hitel:sawh
상담:강종욱 실장

찾아오시는 길



Windows95 Windows 모든 응용프로그램 Corell DRAW Photoshop

호클 All Version 호클 96

출력 분판/필름/인화지/레이저

漢字 100% 고어 완벽 지원

번 · 점 · 주 · 판

아직도 조판을 외주에 의존하십니까?

이제 최신은 단행본부터 책에서 직접 조판을 사정에 보십시오. 기사에 단 한 대의 컴퓨터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한푼의 투자없이 조판비를 반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로 인쇄되는 원판이면 이제 PC를 이용, 직접 작업해본시일 같이 드립니다. 기술적인 면 등 조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 삼화가 책임져드립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출판 실무자에 유용한 지식과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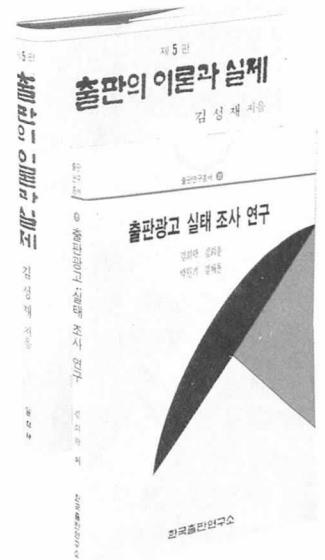
《출판의 이론과 실제》 《출판광고 실태 조사 연구》

다른 분야에 비해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고 연구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출판계에 모처럼 관심을 끄는 두 권의 책이 출간됐다. 《출판의 이론과 실제》 《출판광고 실태조사 연구》가 그것으로 이 분야 연구자 및 출판관계자, 기획, 편집, 영업 등 출판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에게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출판계의 원로 김성재(일지사)사장의 《출판의 이론과 실제》는 지난 1985년에 처음 발간됐다. 출판에 '이론'이 있다는 것이 낯설기조차 하던 시기에 '출판학' 개론서로 발간돼 출판 관계자들의 손때를 땀던 이 책의 5판이 출간됐다. 저작권법의 개정이 개정판 발간의 가장 큰 이유인데 이밖에도 출판의 범위에 '전자출판'까지 포함시킨 것도 시대의 변화를 읽게 한다. 출판일반론과 함께 기획·편집, 조판·인쇄, 교정, 종이·제책 등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해설도 포함한다. 이밖에도 원가관리·정가, 출판광고·유통 등 출판관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판계가 지출한 광고비는 국내 19개 업종 가운데 4위를 차지했으며 총광고비는 3천79억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출판사중 50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집행한 출판사는 6개사, 20억원 이상은 13개사, 10억원 이상은 27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가 펴낸



《출판광고 실태조사 연구》(김희락 외 지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본격적인 출판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모은 책이다. 출판광고를 통해 본 우리나라 출판계의 현황과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 출판광고의 총량과 총광고비, 일반서적, 사전·교재, 학습지, 기타 등 분야별 광고내역, 신문, 잡지, TV 등 매체별 내역도 모두 조사했다. 개화기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판광고의 변천사를 시기별로 살피고 시대별 광고사례도 수록, 광고 스타일의 변화를 짐작케 한다. 출판광고의 현상과 문제점을 살피고 다매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출판광고, 나아가 출판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모색도 담고 있다.

일지사/A5신/376면/10,000원

한국출판연구소/A5신/292면/10,000원



요즘은 귀한 책을 이미지 연출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사진/정진국)

소개는 하지 않고 말로만 자랑하는 것도 불만이다.

무지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을 달래줄 수

있도록, 집어들 한 권의 책이 없는 것이 언제나 불만이다. ❖

“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열두명이 모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색다른 눈과
감각으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12인과 우수편집팀과
아이디어맨으로 구성된
포인트·라인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



POINT-LINE

포인트·라인은 픽처북·스토리북·표지·일러스트와 카렌다·카드·참고서·교과서등 다양한 작업을 하였으며, 모든 광고와 표지·본문 디자인 또한 색다른 시각으로 기획,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의 일러스트 기법으로는 종이 인쇄 일러스트나 수채화, 유화, 지점도, 모래그림 등 기타 기법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아·청소년의 출판과 아동출판 기획을 자신있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